

함평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0.6% 약속이행 총력

보고회서 59개 사업 현황 점검
예산확보 상황 등 개선점 논의
6가지 분야 완료율 66% 기록중
노인 맞춤형 복지 지원 구축 등

전라남도 함평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90.6%까지 끌어올리며 군정 신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완료 사업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함평군은 지난달 26일 2025년 상반기 기준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59개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회는 이상의 함평군수가 주재했으며 강하춘 부군수와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별 추진율, 예산 확보

상황, 부진 사업의 개선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함평군 민선 8기 공약은 6대 분야 59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사업 39건, 정상추진 18건, 일부 추진 2건으로 집계됐다. 개별 공약 이행률 평균을 기준으로 한 종합 이행률은 90.6%이며 완료율은 66%에 달한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어촌뉴딜 300사업 △고품질 TMF 생산시설 구축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확대 지원 △함평군 농특산물 개발지원(유기농 쏘)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문화예술인 및 동호회 활동지원 △노인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등이 있다.

군은 미완료 공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다소 지연되거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조기



함평군이 지난달 26일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함평군 제공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단 한 건의 사업도 소

홀히 해선 안된다”며 “연말까지 미이행 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천지전통시장 새단장 마쳐 함평군, 점포별 맞춤형 지원

전라남도 함평군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은 2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평천지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최근 마무리되며 시장상인과 방문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냉동·냉장고, 상품전열대 등 판매시설 구입 및 제작 등 점포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며 상인들은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는게 함평군의 설명이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상인회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군에 감사드린다”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구독형 전자도서관 운영 전자책·오디오북 14일간 대여

전라남도 장성군립도서관은 2일부터 ‘구독형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구독형 전자도서관’은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자책·오디오북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15만 8000종 이상의 도서가 제공되며 매월 2000종 이상의 도서·잡지가 업데이트된다. 장성군은 양질의 독서 경험을 제공을 위해 엄선된 도서 목록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보문고 플랫폼을 활용하며 1인당 한 달에 전자책·오디오북 각 5권까지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반납 처리되어 편리하다.

‘구독형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가 시작되는 2일부터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서비스개시를 기념해 30일간 커피 쿠폰 30장을 증정할 예정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법성포단오제 씨름왕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영광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영광군 학생 및 읍·면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영광군 제공

영광법성포단오제 씨름왕 대회 성황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 씨름왕대회’와 ‘대통령배 2025 전국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간 영광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앞 씨름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영광군 학생 및 읍·면 100여명의 선수들이 단오제 씨름대회에 참가했다.

더불어 전남 22개 시·군 500여명의 선수들이 대통령배 전남선발대회에 참가해

씨름의 전통을 이어가며 열정을 한껏 드러냈다. 경기장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투지와 관중들의 응원이 가득했고,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지난달 30일은 영광군 학생개인이 펼쳐져 초등부(남) 1위-유지환, 중등부(남) 1위-김주성, 고등부(남) 1위-정학철, 여자부 1위-장여은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31일은 영광군 읍면대항전,

대통령배 예선전이 치러졌으며 읍·면대항전 경기 결과 1위-영광읍, 2위-묘량면, 공동3위-백수읍, 법성면이 기록했다.

지난 1일은 대통령배 결승전이 열려 남자 7개 부문, 여자 3개 부문에서 경기가 펼쳐졌다.

영광군 선수는 중등부(김주성), 대학부(박경빈), 여자 60kg이하(김수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종합우승은 1위-영광군, 2위-고흥군, 3위-구례군이 차지했고 모범선수단·완도군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영광=김도윤 기자

함평군, 지적측량 이후 토지이동 미신청 일제 조사

소유자 재산권 보호

전라남도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

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허가·현장 경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적측량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측량 수수료 낭비를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받은 소유자에게는 신속히 토지이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 서비스 장성군, 상·하반기 총 2회 계획

전라남도 장성군이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에 나섰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찾아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마을 이동장회의 시간을 활용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절차 △농지·산지 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올해 법령이 개정된 농지개량 신고, 농촌체류형쉼터에 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상·하반기 총 2회씩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성군은 업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아간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농촌체류형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축조례도 개정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행복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 8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관내 28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통계조사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취급시설 등을 파악해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학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제출 시기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이다.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연간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조사 대상이다. 광업, 건설업 사업장 등은 연간 유해화학물질 100kg(일반화학물질 1000kg) 초과해 취급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을 통해 입력된 자료는 보완과 검증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조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17일), 여수(7월4일)에서 대면교육을 2회 실시하고 별도로 비대면 교육을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를 통해 6회 실시해 시스템 사용,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지침서와 교육자료를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화학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우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및 사업장 취급안전관리 등 국가 화학안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조사표 작성·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